천주교대전교구
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
34539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86
Tel. (042)630-7771 Fax. (042)630-7784
E-mail : lazzaro@catholic.or.kr

DIOCESE OF DAEJEON
Bishop Lazzaro YOU Heung Sik, S.T.D.
86, Songchonnam-ro11beon-gil,
Dong-gu, Daejeon, 34539, Korea
Tel. 82-42-630-7771 Fax. 82-42-630-7784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교구장 주교 서한

사랑하는 대전교구 사제, 수도자, 형제·자매님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소통과 친교를 이루는 교구공동체'를 만들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사순시기에 공동체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고, 교회의 회의와 만남이 중단되었고, 어려운 이웃을 구체적으로 돕는 일도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서로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살아가던 사회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코로나19의 전염을 막기 위해 이웃과 만나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대전교구 하느님 백성 여러분,

코로나19의 전염병이 가져온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기업과 국민의 기부행렬, 착한 임대인 운동, 마스크 기부 천사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전교구는 2008년 교구설정 60주년을 맞아 어려운 이웃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해 드리기 위하여 한 끼의 식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원을 봉헌하는 '한끼 100원 나눔운동'을 현재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지속해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협력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한끼 100원 나눔운동'의 성금으로 각 본당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분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려 합니다. 비록 작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신부님과 본당 공동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공동의 집"에서 함께 사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당장에는 재앙일 수 있지만, 미래의 은총으로 변화시킬 책임이 새로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신부님과 본당 공동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부활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29일 사순 제5주일에
교구장 주교 유흥식 라자로